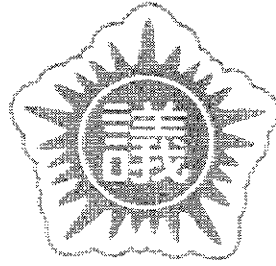


2007. 11. 16(금)

제165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주민동의 없는 영랑동 교정시설유치 계획 재검토 촉구



속 초 시 의 회
(김병욱 의원)

주민동의 없는 영랑동 교정시설유치 계획 재검토 촉구

존경하는 홍우길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주민의 의견과는 괴리가 큰 속초시 영랑동 일대에 가칭 속초교도소 및 교정관련 시설유치계획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의견은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몇 몇 지역단체의 유치 움직임만을 존중하여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의견을 전달하고자, 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교정시설유치 계획에 대해 즉각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5년 정부에서는 영북지역에 2008년까지 250명 수용규모로 교도소 건립을 추진하고자, 속초시에 유치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우리시에서는 "도시면적이 좁고 관광지에 맞지 않으며 주민 혐오시설" 이라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고성군에 유치검토를 요청하였고 고성군 역시 유치반대 표명으로 영북지역에 교도소 건립계획은 사실상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바 있습니다.

설명 드린바와 같이 속초시는 교도소유치 반대 공식표명 후 갓 2년 정도가 경과한 7월 우리지역의 몇 몇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정시설 유치가 우리시의 인구증가 효과가 있으며,

침체 일로에 있는 경제의 회생에 마치 만병통치약인 양 장미빛 일색의 유치계획을 밝히면서, 교정시설 유치계획을 사실상 확정 짓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속초시의 유치계획에 대하여 대다수의 시민들은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은 교정시설 유치를 통한 시의 발전전략 수립보다는 속초시의 발전을 위하여 먼저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맞는 비전을 제시하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먼저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국민의 소득수준은 선진국 수준인 2만불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우리시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어울리는 창의적이고 품격높은 종합 레저형 관광인프라 시설의 유치·건립이 시급합니다.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관광산업이 국민소득 3만불, 4만불 시대에도 튼튼한 기반사업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관광도시로서의 종합적인 발전전략 수립이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의 발전 비전 제시를 위한 연구와 고민없이 손쉽게 온 국민으로부터 하나같이 혐오시설로 환영받지 못하는 교정시설을 유치하여 인구를 증대시키고 주민소득 증대와 연결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졸속적이며, 관광 제일번지인 속초시의 미래와 교도소를 바꾸는 처사는 아닌가 강하게 성토합니다.

“제3의 물결”의 저자로 잘 알려진 미국의 석학 “엘빈 토플러 (Alvin Toffler)”의 “속도의 충돌”이라는 말이 생각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먼저 발사하고 나중에 조준하라” 또한 “60km로 달려야 할 상황에서 200km로 달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시의 정책추진이 작금 이러한 양상은 아닌지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론 등을 통해 미숙한 상태의 정책을 발표하고 시민들의 비판 여론이 나오면 해명하기 바쁜 것이 속초시의 행정추진 형태가 아닌지 말입니다.

본 의원은 교정시설을 영랑동에 유치한다는 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며, 과정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정시설 유치를 계획하기 전 해당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는 물론 전체 시민들과 어떠한 방법으로 의견·여론을 수렴을 하였습니까. 즉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과연 시민의 몇% 정도가 찬성하는지 제대로 된 조사한번 한 사실이 있는지 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관광인프라 시설 또는 경제적 소득이 되는 시설이라도 넓은 지역의 부지를 요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해당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입안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주민들과의 무릎을 맞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먼저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이번과 같은 교정시설의 유치시에는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협조없이 절대 이뤄져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서는 지난 8월 영랑동 장천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지역주민이 반대한다면, 교정시설 유치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설명에 따라 마을주민들은 대다수가 연서하에 반대의사를 거듭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시장님은 또 다시 타 교정 시설을 견학 후 판단하자고 번복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스스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키는 대목이라 생각하며, 누가 시장님의 언행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타 지역에서의 교정시설은 지역발전에 저해된다고 몰아내지 못해 안달인데 우리시는 크지 않은 면적에 혐오시설을 유치하자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진정으로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영랑호를 사랑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교도소로 인하여 영랑호반 산책을 기피하게 되어 우범지역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유치계획을 즉각 백지화되도록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지금이라도 속초시의 중장기적 발전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무조건 열심히만 하려고 의욕만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 하나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좀더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조직의 지도자로서 겸비할 제일의 덕목이라 할 것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